인터넷신문 www.경영저널.com
THE CRITICAL JOURNAL OF MANAGEMENT AND ECONOMY

경영저널

Hot Issue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본격화
공공요금 버스요금 진단
시사in 레지던스 허와 실
커버스토리 주낙영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
지자체가 뛴다 우리 함께 ESG &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 대축제
기업탐방 최고의 클라우드 컨설팅 전문기업 (주)데이타뱅크
이달의 대경인 변호사 이진원
Economy 물가와 금리의 경제
칭찬합시다 대구시청 경제국 「김진옥」 주무관

62TH
2024 6

www.KEPI.or.kr
80
60
40
20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KEPI
한 | 기 | 연

contents | www.경영저널com June 2024 6

06 **청호(靑浩)칼럼**
재판, 국민참여

08 **경영평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10 **공공요금**
버스요금 진단

12 **법과 제도**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14 **커버스토리**
경상북도 경주시 주낙영 시장

22 **지자체가 뛴다**
우리 함께 ESG &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 대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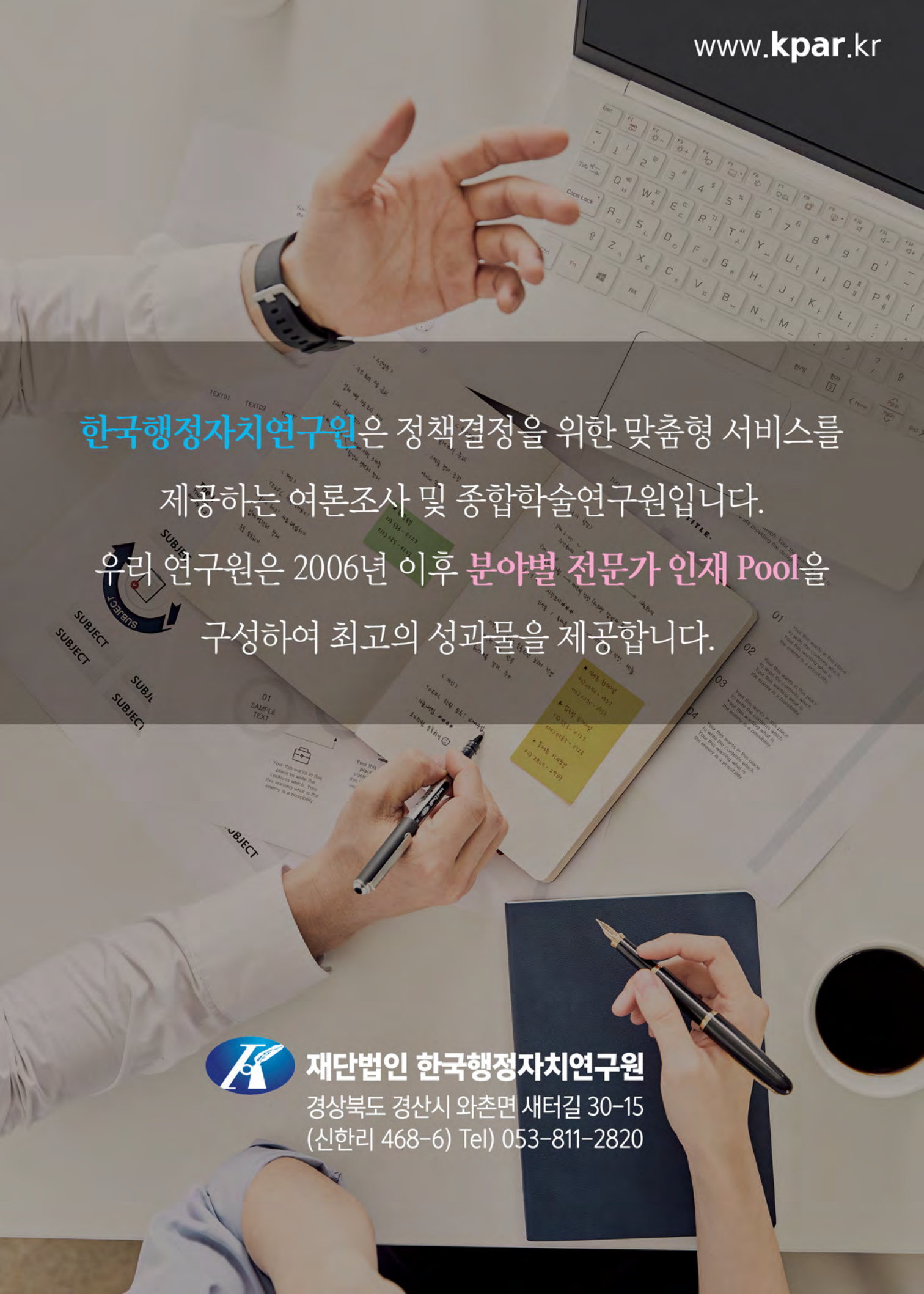
24 **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26 **음식명가**
최고의 맛과 품위 있는 서비스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하는 '진수성찬'

28 **Hot Issue**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본격화

30 **Economy**
물가와 금리의 경제

34 **초대석**
통폐합학교 지원 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www.kpar.kr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정책결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론조사 및 종합학술연구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6년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인재 Pool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과물을 제공합니다.
재단법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811-2820

contents | www.경영저널com June 2024

36 **기행 Story**
삼성현(三聖賢)의 고장 경산 일대

40 **기업탐방**
최고의 클라우드 컨설팅 전문기업 (주)데이타뱅크

42 **칭찬합시다**
대구시청 경제국 「김진옥」 주무관

44 **이달의 대경인**
공정한 세상을 이루는데 열정을 쏟는 변호사 이진원

46 **대구축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48 **시사 in**
레지던스 허와 실

50 **대구 단신**

52 **경북 단신**

54 **불편한 진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경영저널 통권 제62호

발행인	이진구
편집국장	김문철
취재	김원현, 오상원, 이가윤, 이경윤
사진	신영민
편집디자인	김수영
편집위원	조대영, 윤일형, 김용우
디자인·인쇄	워커스 대표 김정석
발행처	http://www.경영저널.com
본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대구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월드컵대로5길 48-19
대표전화	대구 053) 766-1368~9 FAX 053) 766-0379
등록번호	경산. 라 00011
창간	2007년 11월 5일

구독 및 광고문의 053)766-7369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연 100,000원
정가	10,000원
예금주	(주)대경인재개발원
	대구은행 225-12-003611
	농협은행 301-0258-049101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53)766-1368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사진 및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용지 1장(글자 10포인트)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시 도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수성구 월드컵대로5길 48-19
경영저널 편집 제작국 독자 기고팀 담당자 앞
이메일: bmjglobal999@gmail.com
전화: 053)766-1368~9 FAX)766-0379

재판, 국민참여

과연, 재판장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을까

최근 「대구판 돌려차기」 성폭행 시도와 말리던 남자를 살해하려던 범인이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지만,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7년형으로 감형받았다.
2021년도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1심은 구청이 재량행위 일탈•남용의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구청이 적정한 재량행위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로 오히려 당선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3심제도, 즉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고등법원의 판결로 거의 확정되는 2심제나 다름이 없다.

판결은 천당에서 지옥, 지옥에서 천당

이 얼마나 무서운 판결인가? 50년에서 27년, 1심에서 건축허가에서 건축 취소, 그리고 당선무효에서 국회의원의 당선 결정은 천당에서 지옥, 지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느낌일 것이다.
사법부의 결정은 동일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판사와 법원에 따라 엄청난 양형의 차이로 판결하고 있다.
상기 사례 중에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재판은 신뢰성이 없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다. 그렇지만, 두 번째 건축 불허 사례는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교통방해와 수려한 경관)을 통하여 결정한 판사는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결정을 했다.
이러한 재판은 판결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사법권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

국민주권에 따른 재판 참여

법은 불문법으로 판례 중심인 영미법과 성문법으로 재판관의 재량으로 판결하는 대륙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으로서 대륙법과 영미법의 장점을 적절히 혼합한 법체계이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국가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에 따라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주권에 따라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국민이 재판의 주체로서 사법부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 성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이 재판의 주체

우리나라는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 독일의 참심제도를 혼합하여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배심원 제도는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무죄 평결을 반드시 판사가 따르는 제도이며, 참심제는 결격사유가 없는 국민 가운데 선발하여 임기제 법관으로 임명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한적 조건 하에 배심제형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국민이 재판의 주체로서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참여 재판제도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토의 등

오늘날 사회의 트렌드는 지적 재산권 등 다양성과 다원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법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법제도는 직업 법관의 전문성의 한계, 민주적 견제와 감시기능, 그리고 재판 전반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국민 참여 재판제도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관한 토의와 평결권 보장 등 참심제에 충실한 권한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진구
대표이사·발행인

성형도
쁘띠도
피부도

V PLASTIC DERMATOLOGY

V 브이성형외과

대표전화 1577-2604

오시는길 대구 중구 공평로 10길 18 브이스퀘어
(삼덕동 중앙도서관 맞은편) 4~7층

진료시간 월·수·목 09:00 - 19:00
화 · 금 09:00 - 20:30
토 요 일 09:00 - 17:00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난 호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정의, 목적, 법적근거, 평가지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계속해서 공공기관장의 역량이 기관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평가기준 개편 이후 경영평가

정부는 매년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공공기관의 경영노력·성과를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경영평가지만, 정부가 만든 기준에 맞춘 경영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22년 8월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 배점은 하향 조정하고, 기관의 재무 구조 강화를 위해 부채비율 등 재무성과 지표 배점을 높였다.

전체배점의 20%를 재무성과와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변경해 경영 효율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는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따라서 올해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부채를 줄이는 등 경영성과를 낸 공공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이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며,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 역할을 경영평가의 핵심 척도로 활용하면서 공공기관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경영 효율성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 경영평가는 이를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공공기관장의 평가

경영평가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기관장의 인사 문제이다. 대통령실이 4·10총선 등을 염두에 두고 올스톱 했던 공공기관장의 인사를 위해 동시다발적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2024년 공공기관 327곳 중 90곳의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상반기에 만료될 예정이고 올해 말까지 임기 만료 기관까지 총 147곳이다.

이렇다 보니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서 새로운 기관장으로 총선 낙선·낙천자의 보은성 인사가 임명되면 제대로 된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 마저 보은성 인사가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는 측과 공공기관의 자율성이나 업무 전문성을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도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얼른 이해하기 어렵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논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경영평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조대영 편집위원

버스요금 진단

버스 요금 인상은 도시 교통 체계의 핵심 부분 중 하나로, 다양한 원인과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버스는 도시의 교통체계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버스 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그것은, 연료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운영 비용 증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원인의 변동으로 인해 2023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를 비롯하여 각 시·도별로 버스 요금 인상을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에 있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12일부터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을 마을버스 900원에서 1,200원, 순환·차등 버스 1,100원에서 1,400원, 간·지선 버스 1,200원에서 1,500원, 심야 버스 2,150원에서 2,500원, 광역 버스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다. 광역 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 나머지는 300원씩 인상되는 것이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각각 일반 요금의 60%, 38% 수준으로 올랐다.

2023년 10월 6일부터 부산시의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을 일반 버스는 1,200원에서 1,550원으로 좌석 버스는 1,700원에서 2,050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심야 버스는 1,600원에서 1,950원으로 인상으로 요금이 29%, 21%, 22%로 수준으로 올랐다. 청소년은 버스 요금이 동결되었으며, 어린이는 교통카드로 결제 시 무료로 되었다.

대구시는 2024년 1월 13일부터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을 일반 버스는 1,250원에서 1,500원으로 급행 버스는 1,650원에서 1,950원으로 각 250원, 300원 인상하였다. 청소년과 어린이의 버스 요금이 동결되었다.

이에 시민들의 반응은 인상폭이 커서 부담이 된다는 반응이 대부분 이였다.
주부인 L씨(60대)는 「인상폭이 너무 크다.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되어 보이지만 월 단위로 계산하면 부담이 된다」며 「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그에 따른 서비스도 개선되어야 되는데 인상 전이나 인상 후나 변함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직장인 A씨(30대)는 「택시비가 올라서 대중교통 이용이 늘었는데 요금도 오른다니 부담된다」며 「월급은 안 오르고 식비는 물론 교육비, 주거비까지 부담되는 수준까지 올랐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버스 요금 인상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결국 세금으로 보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장인 B씨(37)는 「요금을 안 올리면 적자 버틸 수 없어 올리는게 당연하다. 요금을 현실화하고 노인 무승차 등 지원 대책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들 부담이라고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고 시민들 전체에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버스 요금표

지역	종류	구분	간/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환버스	시행일
서울	성인	교통카드/현금	1,500원	3,000원	1,400원	23.08.23
	청소년	교통카드	900원	1,700원	800원	
	어린이	교통카드/현금	550원	1,500원	500원	
지역	종류	구분	일반버스	심야버스	좌석버스	시행일
부산	성인	교통카드	1,550원	2,000원	2,100원	23.10.06
	청소년	교통카드	800원	1,000원	1,350원	
	어린이	교통카드	무료	무료	무료	
지역	종류	구분	일반버스	급행버스		시행일
대구	성인	교통카드	1,500원	1,950원	-	24.01.13
	청소년	교통카드	850원	1,100원	-	
	어린이	교통카드	400원	650원	-	

* 출저 : 각 시도 홈페이지

시민들의 반응으로 보았을 때, 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래와 같다.
첫째,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학생이나 노인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교통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둘째,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로 이어져, 교통 체증 증가, 대기오염 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하면 지역 내 소비가 감소하고 이는 지역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교통 복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이동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버스비 인상은 버스 회사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지만, 하지만 버스 요금 인상만으로 버스 회사의 경영난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사전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몇가지 논의 하고자 한다.

● 정부 : 버스 회사의 경영을 개선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버스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 차량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버스 회사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버스 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제공 등의 지원을 통해 버스 요금 인상을 예방할 수 있다.

● 버스회사 :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버스 회사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며,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여 버스 운행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노후된 버스 정류장과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이용 시민들 : 시민들은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버스 회사와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버스 요금 인상을 도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

버스 요금 인상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버스 회사와 정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경우, 인상 시기를 조절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버스 요금 인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 교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이슈이다. 그러나 정부, 교통 기업, 시민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면,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상원 기자

■ 법과 제도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3호)」제38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98호)」 제5편 제2장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71호로 공고하였습니다. 윤일형 편집위원

【국토교통부】 2024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집은 우리부 (http//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https://cost.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공사규모	공사종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5억 미만	일반건설(갑)	2.65
	일반건설(을)	2.80
	중건설	3.13
	철도궤도	2.24
	특수및기타	1.61
5억~50억 미만	일반건설(갑)	1.70
	일반건설(을)	1.82
	중건설	2.17
	철도궤도	1.45
	특수및기타	1.06
50억 이상	일반건설(갑)	1.87
	일반건설(을)	1.99
	중건설	2.33
	철도궤도	1.59
	특수및기타	1.16
추정금액 800억원 이상 (단, 주공종이 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	일반건설(갑)	2.04
	일반건설(을)	2.17
	중건설	2.54
	철도궤도	1.74
	특수및기타	1.26

● 기타경비율

공사규모[2]	공사기간	기타경비율[1]				
		토목	조경	산업설비 (토목)	건축	산업설비 (건축)
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5.5	5.3	5.7	5.0	5.1
	7~12개월 (365일)	5.8	5.6	5.9	5.0	5.1
	12~36개월 (1,095일)	6.5	6.2	6.7	5.5	5.6
	36개월이상 (1,096일)	7.0	6.7	7.1	5.7	5.8
50억~3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6.1	5.8	6.3	5.4	5.4
	7~12개월 (365일)	5.9	5.8	6.1	5.4	5.5
	12~36개월 (1,095일)	7.4	7.1	7.5	5.8	5.8
	36개월이상 (1,096일)	7.7	7.7	8.1	6.0	6.1
300억~10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6.0	5.8	6.2	5.4	5.5
	7~12개월 (365일)	5.9	5.7	6.0	5.4	5.5
	12~36개월 (1,095일)	7.3	7.1	7.4	5.9	5.9
	36개월이상 (1,096일)	7.9	7.5	8.0	6.0	6.1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5.2	4.7	5.2	5.7	5.8
	7~12개월 (365일)	5.1	4.6	5.1	5.8	5.8
	12~36개월 (1,095일)	7.0	6.7	7.1	6.2	6.4
	36개월이상 (1,096일)	7.5	7.3	7.6	6.5	6.5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보고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시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 도전합니다!

경상북도 경 주 시

| 인터뷰 |

주낙영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

Profile

1961년 06월 26일 경주 출생

2015년 : 경북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1994년 : 미국 아이오와대학원(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1985년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1983년 : 성균관대학교(행정학 학사)

2015년 : 대구 능인고 졸

2022년 07월 : 민선 8기 경주시장(34대, 현)

2018년 07월 : 민선 7기 경주시장(33대)

2015년 08월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장

2013년 04월 :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2012년 12월 :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

2012년 09월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지원단장

2009년 07월 : 외교통상부 주뉴욕 총영사관 선임행정관

2008년 03월 : 대통령행정자치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06년 04월 : 행정자치부 균형발전기획관

2003년 09월 : 경상북도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1999년 08월 : 경상북도 기획관, 도지사 비서실장

1985년 10월 :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천년고도 경주는 찬란한 역사문화도시의 기반 위에 첨단 과학산업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그 중심에 있는 경주시의 수장 주낙영 시장님과 뜻깊은 만남의시간을 가졌다.
민선 8기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님의 진두지휘하에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라는 비전과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좋은 일자리 첨단 신성장산업 육성, ◇온(溫, All) 가족행복누리도시,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농어촌, ◇사통팔달 도로교통망구축 이라는 5대 핵심 전략을 표방하며 힘차게 순항 중이다.
40여 년에 가까운 공직생활을 거치며 대통령 표창과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고, 시장으로서 솔직함으로 소통하고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며 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지난해에는 경북도 최초로 행안부 주관 「다산목민대상」을 수상하였다.
2024년 ◇「칠불암 5감 치유체험」이 문화재 주관 2025년 국가유산 활용 대표 상표 10선에 선정, ◇매경미디어그룹 2024 대한민국 최고 경영대상 수상, ◇국제회의 복합지구 문체부 공모 2년 연속 선정,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4년 연속 최우수(SA) 등급획득, ◇정부합동평가 A+ 「최우수」선정 등으로 많은 성과를 내오고 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정으로 역사문화의 향기속에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로운 경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주낙영 경주시장

Q 민선 8기 시장직을 수행하며 이룬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것이 있나?

A 먼저 경주시 역사상 최초로 제조업 중심의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로 문무대왕면 일원에 세계 원전시장을 공략할 150만m² 규모의 SMR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사업은 국내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의 요람이 될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연계한 특화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경주는 한수원본사, 원전 6기, 중저준위 방폐물관리공단, 중수로해체기술원 등 원전의 전 주기 사이클을 보유하고 있어 양성자가속기센터, 2025년 준공 예정인 소형모듈원자로 R&D 연구단지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2030년 준공예정인 실증·상용화 기지 SMR 국가산단 등으로 경주가 원전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최고 이벤트인 대릉원 무료개방 및 미디어아트, 경주문화관 1918 광장 활용을 비롯한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등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국내 최초 에어돔 축구훈련장 준공으로 폭염·한파에도 불구하고 전지훈련과 대회 등을 유치해 스포츠메카로서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청렴도 종합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 행정안전부 「다산목민대상」 수상, 3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SA)」 등급 획득 등 대외적으로 경주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Q **최근 2025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A 지난해 범시민추진위원회와 민간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포럼 개최를 통해 유치도시 인지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 왔습니다. 도지사님 및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외교부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대정부 유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 위치한 APEC 사무국도 방문해 사무총장에게 APEC 정상회의의 경주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100만 서명운동에서는 불과 85일 만에 146만 3,879명이 참여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4월 19일에는 'APEC정상회의 최적지는 경주'라는 내용을 담은 유치신청서를 외교부에 제출하였고,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경주를 시작으로 제주와 인천 등 APEC 개최 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외교부 현장실사단의 비공개 점검이 있었습니다. 당시 외교부 현장실사에서 경주는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위 현장실사단은 첫날인 지난 20일 KTX를 통해 경주에 도착한 후 정상회의장이 될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해외 정상들이 묵을 보문관광단지 내 숙박시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 경주가 회의장과 숙박 인프라에 있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간 경주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당위성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정체성, 지방시대 균형발전 실현, 준비된 국제회의도시로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 정상 경호와 안전 안심도시 등을 내세워 개최 명분에서도 여타 후보도시를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 등이 경주의 강점입니다.

향후 「Only 1 For APEC」을 비전으로 모든 부서와 유관기관, 대내외 네트워크 등을 총동원해 오는 6월 예정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최종 선정 시까지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Q **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반드시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개최 시 경주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아시다시피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입니다.
또한 경주에 모여 있는 원자력 에너지산업은 물론 인접한 울산, 포항, 구미 등 산업대도시와 함께 한국 경제 발전 현장을 정상들에게 바로 보여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회의장 반경 3km 내 숙소와 전시장이 한곳에 모여 있는 보문단지는 정상 경호에 아주 유리한 진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쟁도시 가운데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인 경주는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가장 잘 부합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정상회의 외에도 장관급회의, 비즈니스회의, NGO회의 등 300개가 넘는 각종 회의가 열려 1년 내내 많은 손님들이 경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매스컴이 주목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개최도시는 엄청난 홍보 효과를 보게 되는데, 이는 경주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APEC 경주 유치는 국내외 관광객 증가 등 생산유발효과 18,86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852억원, 14,438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비롯해 국제MICE 관광도시 위상제고 등 경주의 미래 100년 대계를 앞당길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국제회의 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해 명실상부 국제회의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며 대규모 도시 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Q **경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관광도시이다. 문화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A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768만 명이 경주를 다녀가 경주는 관광객 5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최고 권위의 상인 '한국관광의 별'에 대릉원, 동궁과 월지가 선정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과 신라역사관 건립,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을 통해 경주에

서만 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경주로ON」 앱 하나로 숙박, 교통, 체험, 맛집의 예약과 결제가 한 번에 가능한 통합관광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향후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대릉원, 경주역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여행자 라운지에는 「경주로ON」과 연동되는 디지털사이니지, 짐보관 서비스, 포토부스, 북카페 등으로 편리하고 안락한 여행자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밖에도 제2동궁원 라원, 선부역사기념공원을 조성하고 보문관광단지짚라인 같은 트렌드에 맞는 액티비티 관광자원도 적극 발굴해 국내는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경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조감도

Q 경주는 문화관광도시를 넘어 첨단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

A 문무대왕면 동경주IC부근 일원에 SMR 연구개발 및 생산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통합형 제조와 미래 혁신원자력산업 플랫폼을 차별화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산업단지에는 원자력·전력산업, 원전해체 등 핵심 23개 업종과 그린에너지, 소재부품, 전기설비 등 연관 29개 업종이 입주합니다.

향후 2026년 착공을 목포로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입주기업들의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2028년까지 사이언스 빌리지, 원자력 공기업 자사고, 원자력 타운하우스 등의 배후 공간을 구축하는 경주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주는 포항 철강, 울산 완성차 산업의 중간도시로 자동차 산업비중이 60%를 육박하고, 1,300여개의 소재부품 연관기업이 집중해 있는 자동차산업의 메카입니다. 이에 시는 산업부 공모에 도전하

여 924억원을 확보하고 전기·수소·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내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와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 연말에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를 완공하여 원전·e-모빌리티 연구단지·SMR국가산단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세대 첨단과학혁신도시로 도약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 속에서 우리 지역의 관련 기업들이 고민해야 할 과제들이 R&D 거점 센터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Q 경주가 명품 해양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특별히 추진하는 시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A 경주는 44.5km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문무대왕 수중릉, 감은사지, 주상절리, 만파식적 등 아름다운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그에 반해 해안가에 위치한 동경주의 어촌마을은 다소 낙후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해수부 어촌뉴딜 300사업과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7개 항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563억원을 들여 방파제 정비, 다목적광장 및 활력센터 조성 등으로 어항·어촌 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무대왕 성역화사업, 문무대왕 해양과학관 건립, 선부 역사기념공원 건립 등로 해양산업의 중요성 전파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내륙과 해양을 연계한 문무대왕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 나정고운모래해변 일원이 동남권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라오션킹덤」을 주제로 해양레저 지원센터, 용오름길, 문무대왕 해양 조각공원, 수상레저 체험장, 만파식적 공원 등이 조성됩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주는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레저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경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6%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랑할 만한 노인복지 정책이 있다면?

A 경주시는 최고의 노인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탄탄한 복지망 구축에 나섭니다. 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당 연 13만2,000원씩 택시 기본요금을 지원합니다. 1회당 최대 8,000원까지 결제 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이용자가 약 4만 명으로 집계되며, 연간 74만4,746회를 이용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180억원을 투입해 올 연말까지 4,236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합니다.

안강 고령자 복지주택은 지난해 5월 103세대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137세대는 올 연말, 내남 고령자 복지주택 90세대는 내년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3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권 경주파크골프 제2구장 18홀, ◇북경주 안강 9홀, ◇남경주 외동 9홀 등 총 36홀을 추가 조성합니다. 기존에 조성 완료된 ◇시내권 경주파크골프 제1구장 18홀과 알천파크 18홀의 합36홀, ◇서경주 건천 9홀, ◇동경주 앙남 월성원자력본부 추진의 18홀을 더하면 5개 권역에 파크골프장이 총 99홀이 운영되는 셈입니다.

Q 최근 언론에 경주 도심의 빈집이 마을호텔로 변신해 지역에 활기가 돌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내용인가?

A 지난 3월 11일 행복황촌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마을호텔 「행복꿈자리」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내국인 숙박 특례 전환」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립된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에 한해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특례를 적용받으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내국인 숙박 특례전환'은 경북 1호이자 전국 2호로 이날 현판식은 그간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이곳들은 모두 방치된 빈집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호텔로 전환하면서 지역 상권 회복과 빈집 정비의 일석이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판식 당일 내국인 숙박 특례전환 현판을 받은 마을호텔 4곳 외에도 경주맨션, 황오연가 등 9곳이 올 상반기 마을호텔 등록을 준비하고 있어 도시재생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Q 지자체의 인구 정책의 핵심은 청년유입이다. 경주만의 차별화된 청년 정책은 무엇인가?

A 경주시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청년 임대주택」을 운영합니다.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임대형 50가구와 매입형 21가구의 2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임대형 청년 임대주택은 기존 건물을 시에서 임대해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매입형 청년 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1동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매입형 임대주택은 거주시설 외 1층에는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시제품 및 전시회 공간은 물론 복합문화공간도 마련돼 있어 입주자들 간 자유

롭게 소통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1인당 월 5만원의 사용료를 비롯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부담하면 되고,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1회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입주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1인 가구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로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시는 올 7월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8월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을 한다면?

A 민선 7기부터 오직 시민행복과 경주발전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경주시정이 경북도 최초로 15년 만에 행안부 주관 「다산목민대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2년 연속 1등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자체장 공약이행평가 4년 연속 '최우수(SA)', 2022년에 이어 2024 정부합동평가 경북시군 최우수 등급 획득 등 경주시가 행정 점수 A+를 받았습니다.

경주시의 올해 최대 역점과제는 단연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입니다.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결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주시는 경주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 지난해 본예산 1조 8450억 원에서 550억원 증가한 1조 9,000억 원을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미래 준비에 과감히 투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제2동궁원, 보문관광단지 관광역사공원 조성 등으로 현대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해 관광객 5,000만 명 시대를 여는데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지속 추진과 경주형 e-커머스 활성화로 도심 경제를 부활 시키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 확대 추진으로 청년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도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 신농업혁신타운 조기 준공,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동남권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축수산업에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물론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AI·IOT 기반 건강관리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장애인 자립 지원으로 사회참여 확대와 행복추구에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SMR 국가 산단 유치에 이어 2025 APEC 정상회의도 반드시 유치해 세계 속의 경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경주시민들의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경주의 희망찬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경주시, 전국 최초 탄소중립'실천'선도도시
우리 함께 ESG &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 대축제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식을 개최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4월 22일 제54회 지구의 날에 맞춰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전략수립 심포지엄, 시민원탁회의, 시민실천운동 추진 등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경주 만들기에 매진해 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실천」에 방점을 두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실천수칙 1만부를 제작·배포하였고, 경주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명페이지를 구축해 범시민 공감대 확산과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에 힘썼다.

국가지속발전가능목표 이행 협약

5월 18일에는 관내 17개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가지속발전가능목표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국가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를 각 사회단체와 매칭해 선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경주시의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추진 정책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대응 및 경주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

이와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 및 경주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경주시 금성회(경주시 기관단체장 모임)」 의제로 상정한다. 경주시금성회에 소속된 73개 민관산학 기관의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 확산과 정책 추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경주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열리는 이번 선포식은 행사 취지에 맞게 준비 단계부터 탄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현수막 활용, 모바일초청장 전송, 일회용품 최소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행사당일에는 탄소중립 포토존, 지구환경 사진전, 폐의약품과 폐건전지 수거코너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직접 참여해보는 기회도 제공했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에게는 탄소중립약속 배지를 배포함으로써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고, 탄소중립 온라인 서명 참여 및 주변 전파 등의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경주시는 실질적인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 환경관련 단체 회원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이번 선포식을 통해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참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 탄소중립 실천이 생활문화로 조기 정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Beautiful 경주! 환경대축제

경주시는 6월 1일 황성공원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제29회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제16회 Beautiful 경주! 환경대축제」행사를 개최 하였다.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식은 경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경주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시민, 학생, 기업체, 사회단체 등 5,000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기념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체험·전시 프로그램을 체험 하였다.

환경의 날은 유엔이 1972년부터 6월 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시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선포식」을 가진데 이어 이번 행사를「우리 함께 ESG &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라는 부제로 전 세계적인 홍수·산불 등 기상이변에 따른 기후변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사를 펼쳤다. 기념행사를 알리는 팬플룻 연주와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환경보전 분야 유공자 표창, 탄소중립 표어.포스터 공모작 시상, 기념사, 퍼포먼스(탄소중립, APEC 홍보) 등의 순으로 진행 하였으며, 또한 부대행사로는 친환경 체험, 전시 및 탄소중립 홍보와 환경미술대전, 환경퀴즈 골든벨, 숲속 영상관, 숲속 놀이터 등 다채로운 체험과 전시로 환경보전 의식을 몸소 체험 하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환경의 날 기념사를 통해 탄소중립이 시대적 소명으로 시민들이 앞장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시에서도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현 기자

미래 신성장 동력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미래 신성장 동력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천년고도 경주가 찬란한 역사문화도시의 기반 위에 첨단 과학산업거점도시로 다시 한번 발돋움한다.

경주시는 국보 31개, 보물 102개, 사적 79개를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도시이며, 현재 연간 4,700여만명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이다. 그러나 과거 경주지진과 코로나19국면에서 전반적인 관광산업이 침체되어 경주시의 활력이 떨어졌다.

주낙영 시장님이 취임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시정방향을 경제기업도시 육성과 과학산업도시 조성이라는 기본 전략을 세우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역사문화관광도시의 기반 위에 첨단 과학산업도시로 빠르게 변모하게 되었다.

경주시 SMR 국가산단 유치

경주시는 2023년 3월 15일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e Reactor, SMR)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비 3,966억원을 투입해 경주 문무대왕면 동경주IC 부근 일원에 세계원전시장을 공략할 150만m²규모의 SMR국가산단을 조성한다. SMR국가산단은 국내 SMR 연구개발의 요람이 될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연계한 특화사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원전수출시장 선점할 SMR

SMR은 원자로의 부품을 공장에서 모듈형으로 생산하여 현장에서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전기출력 300MWe 이하의 원자로이다. 대형 연결배관 파단 등의 사고 원천배제 설계 및 강화된 내진설계로 재해 대처 및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비용이 저렴하고 적은 탄소배출량과 높은 발전효율로 수소생산, 해양, 그리고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적의 발전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경주시는 2022년 10월 국토부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현장실사, 전문가 종합평가, 산업입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심사과정을 거쳤다. 경주시가 SMR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한「SMR국가산단 경주 지정 시 입주의향」등을 물은 조사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225개 기업에서 275만m²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고무적인 성과를 냈다.
SMR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수원, 그리고 대형해운사 HMM 등 유관기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SMR 국가산단 성공적 조성

SMR 국가산단은 2026년 착공하여 2030년까지 조성되는데, SMR 글로벌 시장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EU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이 포함됨에 따라

글로벌 원전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2035년에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390조원에서 6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SMR국가산단은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SMR 연구개발과 연계해 SMR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국가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여 탄소중립 및 SMR 수출산업화를 선도할 것이다.

SMR국가산단에는 원자력·전력산업, 원전해체, 연구개발서비스 등 핵심업종 21개 와 그린에너지, 소재부품, 전기설비를 비롯한 연관업종 29개가 입주한다. 경주시가 연구용역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SMR국가산단을 통해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3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410억원, 취업유발효과 5,399명이며, 산단 조성 후 가동시는 생산유발효과 6조7,357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2,779명에 달하여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경주는 6기의 원전,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중저준위방폐장에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비롯해 중수로 해체기술원과 SMR국가산단까지 들어서는 명실상부 원자력 산업 메카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경주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을 최단 기간에 완료해 완공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그리고 산단 내에는 입주 근로자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형 사립고 유치, 안락한 주거단지 등 정주여건 조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후 체코 트레비치시를 방문하여 원전 세일즈에 나서기도 하였다. 한수원 본사와 원전을 보유한 도시의 시장이 직접 K-원전의 안전성을 홍보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주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SMR 국가산단 지정의 기대효과

SMR국가산단 지정은 산업적 차원에서 SMR R&D 및 생산특화가 이루어지고, 탄소중립 및 SMR 수출산업화을 선도하여 경북 동해안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나아가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원이자 상생에너지원으로서 SMR보급을 확산할 수 있는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고, 현정부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SMR수출에 필요한 제품을 사업화하고 대량 생산 산단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원자력 제품 생산 및 수출기능을 통한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완성 및 브랜드화, SMR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편집국

본보는 음식명가 코너를 통해 고객과 독자의 입장, 맛 그리고 서비스 수준을 심층 분석한 데이터로 지역 음식점을 알려 나가고 있다. 음식 명가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재단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이 객관적 평가지표로 제시한 서비스 품질 측정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 및 의사소통 등 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유형성'을 비롯해 서비스의 철저함 등으로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는 '신뢰성', 서비스 제공 의지를 나타내는 '응답성', 직원의 능력과 예절, 업체의 신용도, 안정성 등을 뜻하는 '확신성', 접근가능성과 고객 이해 등을 내포한 '공감성'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를 토대로 실시한 평가 결과, 경북 경주시 교촌길 39-9에 위치한 '진수성찬'이 그 영예를 안았다.

건강한 식단과 최상의 식자재에 정직함을 더해 최고의 맛과 품위 있는 서비스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하는 '진수성찬'

경주시 교동 교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길을 조금만 접어들면 수려한 전통 한옥이 손님을 반긴다. 경주 최씨 최원혁 대표(45세)가 운영하는 한정식 명가 진수성찬이다.

경주 교촌마을은 신라 신문왕 2년(682)에 국학(지금의 국립대학)이 세워졌던 곳으로, 고려시대의 향학, 조선시대의 향교로 이어졌던 곳이다. 교촌(校村)이라는 지명은 향교가 자리한 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한다.
또한 이 마을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으로 유명한 「경주최부자댁」이 있다. 9대 진사, 12대 만석의 재산을 이어온 명문가로서, 400년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해방 후에는 교육사업에 전 재산을 기부하여 부(富)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교촌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는 진수성찬은 무엇보다도 깔끔한 한정식, 내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와 전통한옥의 멋진 풍경속에서 식사할 수 있는 교촌마을 최고의 음식명가이다.

진수성찬 대표메뉴는 ◇최家 알배기 암꽃게 간장게장이다. 할머니, 며느리, 손자 3대에 걸친 경주 최家 전통비법 장맛과 서해 연평도 최북단에서 봄에 잡힌 국내산 최고등급 알이 꽉 찬 암꽃게만을 고집하여 건강하고 맛있게 숙성한 간장게장이 제공된다.

밥도둑이 따로 없고 실한 내장에 알까지 더해 큰 그릇에 김가루, 양념까지 제공해 밥을 비벼 먹으면 그 맛이 환상적이다.

진수성찬은 외국인 손님들도 심심찮게 방문한다.
그 외국인이 많이 찾는 메뉴가 ◇옛날신라불고기이다. 맵지 않은 특제비법 간장소스에 숙성시킨 부드러운 경주천년한우 소고기, 쫄깃한 떡과 다양한 채소가 잘 어우러진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전통 소불고기이다.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으로 된 메뉴판도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최家 순살 게장 비빔밥은 꽃게살을 직접 발라내고 경주 최家 특제 소스가 곁들여져 간편하게 비벼먹을 수 있는 특제비빕밥으로 가격부담을 줄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메뉴이다.

위 메뉴에는 경주지역에서 집적 재배한 신선한 채소류의 정갈한 밑반찬이 제공되고, 잡채, 샐러드와 감태초밥은 손님들의 입맛을 돋우고 있다.
제공되는 밥도 도정된 지 일주일 이내의 쌀을 사용하여 그 밥맛을 최상으로 유지한다. 비법 간장에는 한약재를 첨가하여 손님들의 건강까지도 챙기고 있다.

겨울철 주로 제공되는 ◇동궁과월지 전골은 경주지역 농장에서 재배한 7가지 버섯과 싱싱한 계절채소, 소고기, 해물, 두부 등을 넣은 프리미엄전골로 손님들에게 인기이다. 곁들임메뉴로는 ◇봄시즌 한정 미나리전, ◇새우듬뿍 부추전, ◇경주천년 미경산 한우육회, ◇언양식 소고기 바싹불고기 등이 있다.

특히 여름 계절메뉴로 제공될 ◇경주천년 미경산 한우육회물회는 새끼를 낳지 않은 신선하고 부드러운 미경산 경주천년한우 우둔살에 비법 양념을 더해 감칠맛을 끌어올린 육회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류로 제공되는 교동법주는 무형유산(구 무형문화재) 최경옹께서 직접 빚은 궁에 진상하던 경주최부자 350년 역사의 경주대표양주로 유일하게 진수성찬에서만 제공된다.

최대표의 어머님께서는 20여년동안 음식점을 운영하셨는데, 4년전 어머니께서는 2선으로 물러나시고 부부교사였던 최대표가 진수성찬을 이어받아 주도적으로 경영해오고 있다.

최대표는 음식에 진심으로 한식, 중식, 그리고 양식 등 조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음식 관련 특강이나 교육 등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음식솜씨를 부단히 향상시키고 있다.

최대표의 진수성찬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주낙영 경주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기도 하였다.

진수성찬의 최대표는 경주최부자댁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이어받아 나눔을 실천하는 경영인이 되고자 항상 마음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대표의 진수성찬은 항상 정직함으로 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어 지역의 대표 음식명가로 계속 자리매김할 것이다.

올봄 진수성찬에 제비 한 쌍이 날아와 처마에 둥지를 틀고 낳은 새끼들이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다. 제비가 흥부네에 박씨를 물어와 복을 주었듯이 진수성찬에도 큰복이 내릴 것 같다.

편집국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본격화

정부는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국고보조사업 혜택 부여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유입, 정주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을 말한다. 경영저널의 이번 코너에서는, 경상북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

경북도는 2024년에 총 291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정받아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지역산업 기반 인재 양성, 연구지원센터 건립, 정주 환경 조성, 문화콘텐츠 활성화 등이 있다.
특히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하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 프로젝트

「K-U시티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소멸 위기 극복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통해 「청년 지방 정주 시대」 실현을 위해 경상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K-U시티 프로젝트는 대학·기업·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교육·취업·주거·결혼 문제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문화콘텐츠 활성화」 프로젝트는 웹소설, 웹툰, 드라마 등 문화컨텐츠 중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아이디어로 기획될 수 있는 스토리 산업과 그 사업을 연계한 다양한 청년문화 컨텐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 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경북도 지역주력 산업으로서, 시군구를 기반한 연고산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의 성장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한마디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특화산업을 지원·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문제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연례적인 소규모 사업에 집중되기 쉬운 구조로 인해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효과적인 배분에 대한 우려가 보인다. 기금의 배분이 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모든 지역에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업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체계가 미흡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과 성과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을 위한 충분하고 밀도 있는 제도를 준비·설계하고 그에 따른 운영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선 방안

단기간에 지원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장기 전략 수립하여야 한다. 단기적인 기금 지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도모를 꾀하고,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 후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도입하여야 한다.
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집행 실적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연도의 기금 배분에도 과거 결과수치를 반영하여 더나은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경북도의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는 의성 공항신도시와 연계해 항공 MRO와 항공 물류 관련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캠퍼스와 명품 주거단지, 교육 및 문화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지역 거점별 청년비전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청년 창업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전남형 만원주택(1천호) 건립 등 청년층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듯, 각 시도군 부처에서는 다양한 우수 사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경상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 부족, 효과적인 배분 문제, 집행 실적의 평가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장기 전략 수립, 효과적인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도입,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경상북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우 편집위원

물가와 금리의 경제

물가가 심상찮다. 4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 100)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3.1%였다.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 1월 모처럼 2%대(2.8%)로 내려갔다가 2월 3.1%로 반등했고 같은 수준의 상승률이 두 달째 이어졌다.
소비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생활물가의 오름세다. 3월 생활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3.8%로 상승했다. 지난 1월 3.4%를 기록했다가 2월엔 3.7%를 기록했었다.

중앙은행의 물가와 금리 조절기능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통해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고 물가와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편다.
물가는 통화량과 인과관계를 가지는데, 통화량의 증가·감소는 물가의 상승·하락을 가져온다. 금리가 물가상승의 원인 통화량을 통제하는 수단인 것이다.

보통 물가와 환율이 상승하면 중앙은행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이에 따라 소비가 줄고 투자금 회수로 돈의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물가하락,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떨어지며 기업실적이 줄어들어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은 다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대출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오른다.

하지만 경제에는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총공급이 감소하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국내총생산(GDP)는 감소한다. 인플레이션과 불황이 동시에 나타난다.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즉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인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높여야 하고, 불황을 잡으려면 금리를 낮춰야 하는 데, 딜레마에 놓이게 된다.

미국의 물가와 금리의 경제지표

최근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은 여전한 가운데 성장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다. 1970년대에 석유파동이 경기를 침체시키면서도 물가는 계속 상승한 바 있다. 미국은 2024년 1~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돈 데 이어, 또 다른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1분기에 3.4%

상승해 작년 1분기(4.2%) 이후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1.6%를 기록하여 시장 예상치 2.4%를 밑돈 것은 물론 2년 만에 가장 낮게 나왔다. 가장 큰 이유는 근원 인플레이션(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를 제외)이 올라갔고,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연율 5%를 넘었다. 1분기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3.7%로 시장 예상치 3.4%를 상회한 바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2022년 이후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해왔지만, 연준 인사들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아직 고용과 소비가 여전히 탄탄히 받쳐줌으로써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이다.

1970년대에는 물가가 잠시 안정되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췄다가 인플레이션이 1980년 14.8%를 찍었고, 폴 볼커 전 연준의장은 파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 물가를 잡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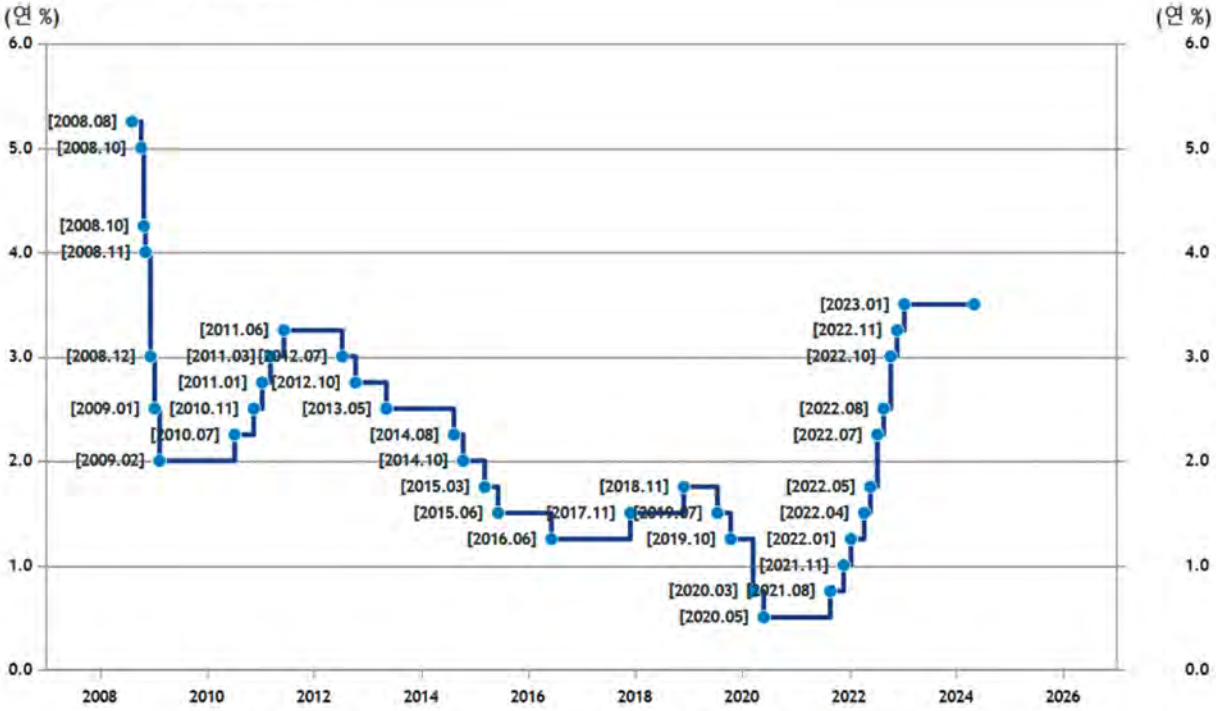
지난해 미국경제는 성장이 견조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연착륙 기대감이 커졌지만, 최근 지표 발표로 시장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다.

미 연준의 금리인하 지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인플레이션 진정세가 정체된 상황과 관련하여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시장의 올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연초 6회 이상에서 1~2회로 내려갔고, 동결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7월을 지나 9월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견해도 있다.

미국의 5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Fed는 정책금리를 5.25~5.50%로 동결할 전망도 나왔다.
파월 의장이 발언의 수위를 높여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친다면 자산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달러화 초강세에 놓여 있는 외환시장이 가장 먼저 출렁일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도 불가피하다. 원화는 FOMC 회의 결과는 물론 엔·달러 환율과 높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다행이 미국 연준은 현지 시각 5월 1일 FOMC를 열고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일축하고 전망대로 6차례 연속 5.25%~5.50%의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다.

파월은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금리 인하를 위한 확신을 가지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관망」이 길어질 듯한 분위기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나 도이치뱅크도 12월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한국의 금리 인하 필요성

세계 경제와 금리 인하는 연관이 많고, 한국의 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높다. 글로벌 경기에 따라 적절한 금리를 유지하는 금융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2024년 4월 12일 물가상승 자극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3.50%로 10회 연속 동결하였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6월 인하설이 물건너가자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국채금리도 상승하는 등 한국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삼중고에 경기침체 우려까지 높아지면서 한국경제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다만 5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면서 기존 전망치를 0.4% 상회하였다. 그러나 그 실현 여부는 대외변수가 관건인데, 중동발 리스크, 11월 미 대선이 올해 경제성장률 달성의 최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는 높은 물가와 금리, 환율을 어떻게 극복하는냐가 관건이다.

수출의 나홀로 회복(반도체, 방산, 자동차)으론 경기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다. 누적된 고금리가 내수와 투자를 제약하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물가안정 추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편집국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경 주 시

가장 한국적인 도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보고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시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

도전합니다!

통폐합학교 지원 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국립안동대학교
사범대학 교직부장 이기용교수

왜 이 연구를 수행하였는가?

본 글에서는 지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한 「통폐합학교 지원 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출발 근거로 경상북도교육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학년도 4월 1일 기준, 경상북도교육청 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 및 각종학교 학생 수는 290,043명이었으며, 2021학년도 학생 수 294,417명 대비 4,374명 줄어들었다. 경상북도교육청 내 연도별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학급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수는 거의 변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 읍면 단위 지역 통폐합학교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통폐합학교에 대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운용에 대한 사례분석 및 현황분석을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 지원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며, 더 나아가 통폐합학교 지원 기금 운용 관련 법규 개정, 운용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통폐합학교 지원 기금 운용 현황은 어떠한가?

첫째,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 지원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 설치 근거, 설치 목적, 기금의 사용, 기금 존속 기한 등에서는 특별한 개선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기금의 사용 범위인 시설비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교육활동 지원,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등에 따른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연도별 통폐합학교 기금 조성학교 및 조성액에 대한 분석 결과, 2017년 18개교 932억 2천만원 으로 가장 많은 기금이 조성되었다. 셋째, 2015년을 기점으로 하여 총 54교의 시골 소규모학교가 폐지되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2013년부터 2021년 동안 초등학교가 41교로, 중학교 28교, 다음으로 고등학교 3교 등의 순이었다. 넷째, 연도별 통폐합학교 기금의 조성액에 대한 분석 결과, 2017년이 932억 2천만원로 가장 많았지만, 2021년 60억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다섯째, 통합학교와 폐지학교에 대한 분석 결과, 통합학교는 72교이며, 폐지학교는 84교이었으며, 총 기금조성액은 3,632억원이었으며, 통폐합학교 지원 기금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기금 조성액이 많은 학교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통폐합학교 지원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통폐합학교 지원 기금 운용 현황 및 사례분석, 인식 및 요구 FGI 분석, 설문조사 분석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 운용의 취지 및 목적 관련 활성화 방안, 기금 운용의 역할 및 조직 활성화 방안, 전반적인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기금 운용의 취지 및 목적 관련 활성화 방안

첫째, 통폐합학교 지원 기금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공유 활성화이며, 이를 위해 통합학교에서는

통폐합학교 지원 기금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학부모 대상 적극적인 홍보, 통합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소식지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기금 운용을 통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대 충족성 향상이며, 이를 위해 통합학교에서는 충족도를 높이기 위한 학교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 셋째, 통폐합학교 학생들의 도시학생들 수준의 학습권 보장이며, 이를 위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초학력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진로교육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2) 기금 운용의 역할 및 조직 활성화 방안

첫째,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도교육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우선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향후 연구수행을 통해 통합학교에 특색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도교육청 해당부서 전문인력 선발 및 지원, 도교육청 자문위원회 설치 및 컨설팅 지원, 기금 예산 및 집행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통폐합학교 해당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통폐합학교 관련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 역할 관련 직무분석을 통한 역할의 구체화 및 역할 강화 필요, 기금 운용 매뉴얼 보급,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통합학교 차원에서는 기금 운용을 위한 통합학교 전문인력 지원,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학교별 기금운용협의회 설치 등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반적인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첫째, 기금 계획 및 집행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학교 상황을 고려한 기금 계획 및 집행의 중장기 계획 수립, 매년 통합학교 중·장기발전계획 및 구성원 요구 반영 기금 예산 편성, 매년 기금 편성액 대비 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 둘째, 통합학교 학구 학생 지원으로는 통합학교 및 폐지학교 학구 모든 학생 확대 지원, 교육활동 지원 영역 중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요구 반영, 통합학교 학생을 위한 다양한 시설비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폐지학교 학생 지원으로는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폐지학교 학구 학생 1인당 연간 지원금 사용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폐교된 지역의 주민을 위한 지원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넷째, 통합학교 기금 운용 차원에서는 통합학교 구성원 요구 반영 공식적인 채널 구축, 교직원의 업무 부담 보상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 기금 운용을 통해 기획 및 집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학교 간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축, 지역의 학생 인구 유입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 및 협력, 경험 공유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집 발간, 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삼성현(三聖賢)의 고장 경산 일대

2024년 3월 10일(일) 겨울을 보내고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삼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며칠 지난날, 경산시 사동 경산시립 박물관 앞에 초로의 신사숙녀분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제58차 답사를 위해 모인 대구민학회 회원들이다. 때는 바야흐로 1969년도 우리 문화를 아끼는 몇몇 사람이 진주시 어느 대폿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다 시작된 비영리 단체며 순수 동호인의 모임이 「대구민학회」이다.

기층민 문화유산 답사모임 대구민학회

옛 생활용품이나 각 지방의 독특한 풍습, 몇몇 사람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基層民의 음악, 그리고 이름 없는 그림 등 남들이 들여다보지 않는 선조의 이런 손때묻고 보잘것없는 문화유산을 찾아내어 정확한 쓰임새를 알아보고 이를 세상에 알려 연구할 수 있게 해보자는 순수한 마음에서 회를 조직하였고, 그러기에 민학회는 民+學會와 民學+會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민학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깃거리가 있는 답사의 매력에 반해 지방에서 뜻을 같이하는 분이 많았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광주에서는 1986년에 「광주민학회」가 결성되었고 1994년에는 「부산민학회」가, 1998년에는 공주에서 「금강민학회」가, 2001년에는 대구민학회가 결성되었다. 고문으로 전 서울신문사대표 문태갑, 1대 회장 계명대명예교수 및 전 문화재전문위원 김양동, 3대 회장 전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5대 회장 전 대구서예가협회이사장 정성근, 7대 회장 전 국립국악원장 이동복, 10대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경북지역연합회 부회장 양재명 등으로 대구민학회가 이어오고 있다. 전국 민학회 단체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전국 공동답사를 년1회 이상 시행하고 있고, 대구민학회도 분기별 1회 이상 답사를 다니고 있다.

삼성현(三聖賢)의 고장 경산 일대 답사기행

삼성현(三聖賢)은 경산에서 태어난 세분의 성현으로 한국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고 많은 양의 저술활동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원효대사, 한국 유학의 종주로 추앙받으며 이두(吏讀)를 집대성한 설총 선생, 그리고 역사·설화·향가 등 한국학 연구의 보고인 삼국유사를 저술한 고려시대의 국사(國師) 일연선사를 일컫는다.
답사코스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도동서원-자인 계정숲-제석사-하양무학로교회-환성사-무학산 무학농장 및 상엿집」으로 이어진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은 경산에 역사적 연원을 둔 세 성현의 생애와 업적, 사상을 계승·발전하고 민족문화를 꽃피운 삼성현의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꾸민 전통과 역사가 어우러진 역사문화공간이다. 남산면 인흥리 일원에 면적 262,462m²의 넓은 부지에 삼성현역사문화관, 이야기가 있는 둘레길, 야외공연장,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2015년 3월에 개장하였다. 삼성현역사문화관은 「삼성현, 민족문화를 꽃 피우다」라는 전시 콘셉트로 국내외 30여 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삼성현 관련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 체험공간이다. 지상 1층은 삼국유사의 원효 전기를 새긴 전통서각, 체험공간인 온가족실, 기획전시실이 있으며, 지상 2층은 원효실, 설총·일연실, 삼성현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아카이브실로 구성되어 있다.

원효대사는 깨달음의 내용을 「마음이 생겨나므로 온갖 법이 생겨나고(心生故種種法生), 마음이 사라지므로 땅막과 무덤이 다르지 않다(心滅故龕墳不二)」라고 표현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가 아니겠는가.

주말이 되면 경산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대구지역에서 가족 단위의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봄부터 가을까지 주말마다 음악회 및 각종 공연이 열린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가족공원으로서 삼 성현의 정신이 현대적으로 계승되는 현장이다. 봄날이 아직 완연하지 않아 다소 한기도 느껴지는 날씨다. 도동서원으로 향한다. 남산면에 위치한 도동서원(道東書院)은 유학자 설총 선생을 모시며, 봄에 향제가 봉행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총 선생만을 모신 서원이다. 지역민들이 1894년 세워 설총을 제향하다가 1923년 도동재를 건립했다. 도동재는 「설총이 유곡에서 경주로 가면서 쉬어가는 동쪽 길목에 세웠다」하여 붙은 이름이다. 이후 2010년 도동재를 도동서원으로 변경했다.

자인 계정숲에는 「한 장군」이라는 전설적 인물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큰 공을 세운 인물로 자인 지역에서는 수호신처럼 받드는 인물이다. 현 자인중학교 공사 때 유골이 출토되었고, 그 유골을 수습하여 「한 장군의 묘」자리에 모셨다. 자인 단오 때 제사를 지내고, 「한장군 놀이」라는 전승 집단무를 공연한다.

자인면에 위치한 제석사(帝釋寺)는 원효대사(617~688)의 탄생지에 지어진 사찰이다. 원효대사는 신라 고승으로 통불교(원효종, 분함종, 해동종)을 제창하고 민중 속에 불교를 보급하고 한국 고대사, 철학사, 그리고 사상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추앙받고 있으며, 독창적 지식체계의 위상과 가치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꾸준히 재조명되고 있다.

원효의 어머니 조씨 부인의 태몽에 등장하는 밤나무를 사라수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후에 원효는 자신이 태어난 밤나무 옆에 절을 지어 「사라사」라고 하였다. 제석사는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출가한 후 생가 곁에 지어졌던 「사라사」가 폐사되었다가 400여년 전 밭갈이하던 농부가 불상과 탑신을 발견하고 사찰을 복원했다는 설화가 있다. 제석사에 남아있는 석조좌불과 부서진 탑신, 석등 연화대석 등이 신라말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사라사의 후신이 제석사임을 짐작케 한다.

제석사에서는 원효대사 탄생일인 음력 5월 4일 매년 다례제와 원효·설총·일연 삼성현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삼성현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음력 5월 5일 단오절이 되면 경산시에서 주최하는 경산 자인단오제에도 참여한다.

대구가톨릭대학교와 하양읍사무소 사이로 하양읍을 가로지르는 조산천이 흐르는데, 그 조산천 건너 오른쪽 전통마을 가운데 벽돌로만 지은 네모난 건물 하나가 조용히 서 있다. 신도 30여 명의 작은 시골교회 「하양 무학로교회」이다. 유명건축가 승효상 씨가 설계비도 받지 않고 지어준 예배당으로 속세와 구별하기 위한 수반을 지나 지붕이 없는 좁은 출입 통로로 들어서면 마치 구원받기 위한 좁은 문 앞에 선 듯하다. 1986년 조원경 목사가 개척한 이 교회는 2019년 5월 26일 예배당을 새로 짓고 봉헌예배를 드렸는데, 목사와 신도들은 물론 은해사 돈관 스님과 가톨릭 대구대교구 원로 신부와 수녀 등 기독교와 가톨릭, 불교, 유교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하여 가히 종교의 화합을 열어가는 교회가 되고 있다.

하양읍 교리에 위치한 환성사(環城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0대교구 본사인 은해사의 말사로 신라 흥덕왕 10년(835년)에 심지왕사가 창건하였으나, 고려말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환성사에는 대웅전, 심검당, 요사채, 수월관, 산령각 등의 건물이 있다. 환성사는 특히 봄날 대웅전 마당에서 바라보는 수월관의 차경(借耕)은 압권이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대웅전 앞 연못인 용연(龍淵)을 메워 황금송아지가 떠나가면서 절도 쇠락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퇴락한 절집의 풍경이 쓸쓸하고 고적하다.

무학산과 무학농장은 1960년대 하양지역 주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무학산을 개간하여 무학농장을 만들고 궁극적인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학교를 설립하여 도시로 유학 보내는 부담을 줄이고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며 무학중·고등학교를 설립한 고 이임춘 교장 신부님(펠릭스)의 삶과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조선 500년 역사의 유교실천덕목인 관혼상제(冠婚喪祭) 중에서 효의 적극적 표현형식이 상례(喪禮)이다. 이 상례의 상징인 상엿집(곳집)이 급속한 경제발전과 생활문화의 변화 속에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무관심에 소멸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무학산 자락의 상엿집도 철거위기에 있었으나 한 국가유산(문화재) 애호가의 노력으로 국가지정유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지은지 100년이 훨신 넘은 이 곳집은 지난해 5월 국학연구소 대구경북지부가 당초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에 있던 것을 사들여 연구소가 있는 하양 대학리 무학산 자락으로 이전, 원형 그대로 복원한 것이다.
상엿집은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를 보존한 곳이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삶에 대해 경건해지며 겸손해지는 날이다.

편집국

팔공산 자락의 청정자연 속 쉼터
자연의 풍요로움과 배움의 성장
교육과 힐링의 중심 대경교육원

대경리조트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신의 교육시설 및 편안한 쉼터의 숙박시설, 양질의 식사, 각종 체육 ·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경북 경산시 와촌면 (청통와촌IC에서 5분 소요)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수려한 주위 경관과 잘 어우러져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대경리조트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766.1368**
Home Page: **www.dghrd.co.kr**

최고의 클라우드 컨설팅 전문기업 (주)데이타뱅크

데이터는 21세기 최고의 자원이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산업 분야 등에서 필수적인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생성형 AI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환경 속에서 데이터의 활용은 새로운 가치 창출에 필수적인 자원이 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대용량 데이터 저장소로서 각종 데이터를 모아놓은 집합체이다. 단순 수치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도 포함되어 모인 자료들은 필요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분류 및 저장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통계학적 기법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 등을 적용시키면 유의미한 패턴 파악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미래 동향까지 예측할 수 있다.

2003년부터 20여년간 풍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로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한민국 최고의 클라우드 컨설팅으로 기업환경에 최적화된 IT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 천윤우 대표가 경영하는 ㈜데이타뱅크이다.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1로 232(대흥동)에 대구본사를 두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 6층 606호(뉴티캐슬)에 서울지사를 두고 있다.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차별화된 IT솔루션 제공

데이타뱅크는 20여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립된 데이타뱅크만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방식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반하여 최적의 비용과 업무 효율로 안정적인 IT 정보 자원 이전을 수행한다.

고객이 클라우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서비스 범위와 기준을 세우고 사용자 역할, 접근 권한 등 절차와 프로세스를 상세화해 고객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한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서비스와 도구에 대한 자동화, 가시화, 관리 및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여 고객의 클라우드 도입과 DevOps 환경을 구축한다.

데이타뱅크는 2002년 설립하여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DB, WAS, 보안, H/W 등 고객사 기업 IT 환경에 맞춰 기업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성장해 왔다.

승승장구 성장하는 데이타뱅크

2004년 업무연속솔루션 Ark 출시하고, 중소기업 기술성 우수평가 인증, 2007년 Ark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S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등을 취득하였다.

2008년 대구지방노동청 벤처기업 특별상 수상, 2012년 전국 250여개 고객사와 오라클 DBMS, WAS 기술지원 서비스 체결, 2016년 대구 IT/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대구광역시시장상 수상,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 신소프트웨어상품 대상 수상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2018년 SW산업발전유공자 포상 국무총리상 수상, 대구경북첨단벤처산업대상 대구광역시시장상 수상 등으로 승승장구 성장해오고 있다.

데이타뱅크는 300개 이상의 고객사 및 파트너사와 함께하며 최적의 IT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파트너사는 ◇오라클, ◇제니퍼소프트, ◇네이버클라우드, ◇SQream 한국, ◇Red Hat 등이다. 서버/클라이언트 환경 제공, 대용량 데이터 관리 지원, 운영/DW환경 및 임베디드 지원, 관리/적용에 용이성을 제공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를 통해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고 정보 유출 시에도 데이터 기밀성을 보장하는 DB암호화 솔루션을 실현한다.

데이타뱅크는 의료정보시스템 분야에서도 다년간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병원 목표 시스템에 부합하는 최신 기술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사내복지 구현

데이타뱅크는 매년 성장하는 만큼 사내 복지도 늘려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있다.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자기계발비 지원, ◇재택근무 및 탄력근무제를 운영, ◇근속연수에 따라 리프레쉬 휴가 및 포상금 지급, ◇사내 편의시설, ◇경조사 및 건강검진 지원, ◇통신비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최고의 클라우드 MSP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

뚝심과 열정으로 달려온 천대표는 2022년 데이타뱅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과 대경ICT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지역SW기업 성과교류회 및 대경ICT인의 밤 행사에서 「홍석준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하였다

천대표는 「앞으로도 데이타뱅크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에 핵심ICT기술 발전과 지역사회 성장에 온 힘을 쏟아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 자리 매김하겠다」고 다짐한다. 데이타뱅크는 도전·열정, 창의·혁신, 정직·성실, 상호존중으로 최고의 인재와 기술력으로 끊임없이 혁신적인 IT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자 한다.

편집국

책임감이 강하고 진정성있는 현장중심의 우수한 행정가

대구시청 경제국 김진옥

김진옥 주무관은 부서 내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업무상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부서의 화합을 이끄는 등 동료 공직자들에게 모범이 돼 경영저널 "칭찬합시다" 에 선정되었다.

김주무관은 1995년 2월 임용되어 교통정책과, 의료산업과, 섬유패션과, 국제통상과를 거쳐 현재는 경제국 경제정책관에서 근무 중이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등 대구시 금융정책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한 지역 기업들에게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박진우 이사장은 "평소 열정적인 스타일의 김주무관은 대구시 금융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이를 재단의 보증상품 개발,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는 현장중심의 우수한 행정가"라 평했다.

그리고 김주무관은 섬유패션과 근무 시, 대선공약(그린섬유소재산업 육성사업 발굴) 및 시장공약(염색산단 외곽 이전 추진)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제18회 대구국제섬유박람회는 대구패션페어와 동시에 열려 525개사, 21개국, 3만3천800여명 방문, 상담액 1억287만 달러로 역대급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를 했다. 대구시청 국제통상과 오성현 주무관은 섬유패션과에서 김주무관과 근무를 할 때 "주무업무 외 많은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긍정적이고 포용력있는 자세로 소통하고 좋은 팀워크를 이뤄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부서의 굵직한 민원업무와 다수의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원만하고 완성도 높은 일처리를 했다."고 전했다.

지역 특화산업인 안광학산업 육성사업도 담당하였는데,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도기태 본부장은 「한국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수출역량강화 등 안경산업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특히, 소공인특화 지원센터 설치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중점사안을 협의하고 중기부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공모에 선정, 센터 설치에 성공함으로써 지역 안경산업의 지속성장에 기여했다.」고 그녀를 기억했다.

또한, 다이텍연구원과 기술창조발전소를 관리·운영하면서 염색산업 고도화를 위한 "물 없는 컬러 산업"의 인프라 지원, 벤처기업 창업공간 지원, 염색산업 활성화 및 고도화 성장지원 등 염색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에 힘썼다. 다이텍연구원 기업지원단 윤수진 센

제조기업 애로상담 및 시제품 제작공정에 대한 자문회의

터장은「친환경섬유 육성사업」 추진 시, 신속한 업무수행으로 환경규제 및 친환경인증업무를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이 프리미엄 시제품(기능성 소재)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었다」고 김주무관을 칭찬했다.

김주무관은 요즘에는 보기 드물게 책임감이 강하고 진정성있게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주변 동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매사에 자신의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사회가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이유도 이처럼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평범한 공무원들 덕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관련기관 수상 이력>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표창장 / '20.12.31. / 산업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상생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물없는 컬러산업 육성 사업"
2. 신용회복위원회 : 표창장 /'23.12.20. / 서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지원에 기여 / "금융 소외자 소액금융 지원사업(대구울타리론)"
3. 2022년 다이텍연구원,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로부터 "공로패(감사패) 수상

편집국

■ 이달의 대경인

대종광화(大宗光華)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유지 받든 생활신조로 꿈을 펼치며 공정한 세상을 이루는데 열정을 쏟는 변호사 이진원

본보에서는 「하나되는 대구경북, 경제 통합에 기여하는 정론」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달의 대경인」코너를 진행한다.
「이달의 대경인」은 기획재정부 소관 학술연구기관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변호사 이진원 법률사무소 대표 이진원 변호사가 선정되었다.

우리 주위에는 온갖 고난과 역경,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 및 꿈을 이룬 사람들을 가끔 만나볼 수 있다. 오늘 만나볼 변호사 이진원 법률사무소 대표 이진원 변호사도 그 사례의 주인공이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1992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전북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 3년 과정을 마치고, 2021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까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올해 57세 나인데, 늦은 시기인 50대 중반에 변호사 시험합격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하였는데, 무척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때 심경은 어떠셨는지?

A 합격 발표 소식을 듣고 엄청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던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안도감과 뿌듯한 맘이고 끝에는 저를 믿어주신 스님이셨던 삼촌(작은 숙부)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Q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기와 변호사 시험 합격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사실 제가 여섯 살 때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때문에 부모님은 항상 제게 '너는 몸이 불편하니 꼭 책상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라면서 판·검사가 돼라'고 늘 저를 독려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3학년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스님이신 삼촌이 가끔 저의 집에 들리시곤 했는데, 내색은 안 하셔도 부모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법대에 입학했고, 졸업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4년 동안 사법시험을 치렀습니다. 목표의식이 명확하지 않고 동기부여도 온당하지 못해서인지 낙방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님도 안 계시고 가정형편이 좋지 못해 1996년경 사법시험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바식으로 일하면서 사법시험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일을 병행하기가 어려워지고, 변호사 사무실 일이 적성에 맞는지 일

에 더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활 중에 아내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은 점점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2005년 큰아들이 태어났고, 아내가 그때 공인중개사 일을 하였습니다. 중개업이 잘되어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호사 사무실을 그만두고 아내의 공인중개사 일을 도와주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는 로스쿨(2009년 개교) 입학을 권하였고, 변호사의 꿈을 위해 2011년부터 3년을 준비하여 2014년에 전북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하게 됩니다.

로스쿨 3년 과정을 졸업한 후 치르는 변호사 시험은 5년 이내 5회로 응시 제한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낮은 대학은 6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의사국가고시가 합격률이 9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합격률이고, 그 변호사 시험 오탈자들을 이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다행이 2021년 마지막 5회 때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부처님과 스님이신 삼촌 덕분이고 기적이란 생각마저 듭니다. 저의 삼촌은 14살에 출가하시고 해인승가대학을 나오셔서 고암대종사 직계상좌셨고, 1970년대 조계종 총무원 재정국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제수를 하던 1986년경 대구로 오셔서 북구 산격동에서 금강사를 불사로 창건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삼촌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셨죠.
2018년 8월경 서울에서 거의 피폐하다시피 하여 금강사로 내려온 저를 삼촌은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시험공부를 금강사에서 하게 되면서 부처님께 귀의 하게도 됩니다. 삼촌은 한 번도 저를 머라 하지 않으셨고, 아직 때가 안되었다고, 저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불공드리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2017년 서울 신림동에서 학원생활하며 처음으로 변호사 시험을 쳤으나 낙방하고, 2018년 4월에도 시험에 안 붙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대구 금강사로 내려온 겁니다.
2019년에도 낙방하여 삼촌의 격려에도 너무 볼 면목이 없어 6월에 금강사를 떠납니다. 그때부터 낮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 시험공부를 하면서 2020년 1월 시험을 치렸는데, 시험을 잘 친 것 같았서요. 그런데 발표를 앞두고 2020년 2월 15일(음력) 삼촌이 열반하신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서요. 4월에 합격증을 받으면 삼촌께 바친다는 생각이었는데... 웬걸 또 안된 거예요. 사실상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2021년 마지막 5번째 시험은 그냥 치렸습니다. 그런

데 행운인지 첫날 어려운 소장 작성문제를 아주 잘 쓴 거예요. 「부처님이 도와주시고 삼촌이 도와주시는구나」 생각했죠. 반전이 생깁니다. 제가 잘친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며 전원 만점 처리가 됩니다. 진짜 미칠 것만 같았서요. 발표날 선배들과 발표도 안보고 술을 마셨서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합격자발표 명단에 제 이름이 있다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대종광화 인류공영」이라는 액자를 해놓았는데, 삼촌이 변호사가 되면 '가문을 빛내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라'고 한 유지입니다. 이글을 한시도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변호사님의 오늘 얘기가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변호사라는 꿈을 이루셨는데, 앞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2022년 5월 더봄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자문위원에 위촉되고, 12월 대구시행복진흥원 법률자문단 구성에도 참여하였습니다.
2024년 2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 3월 대구달성경찰서 경미범죄심사 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되는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주위에는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벌이에만 매몰되지 않고 지역의 어렵고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들을 귀담아 듣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변호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이 되는데 미력하나마 보탬이되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소명을 충실히 해내 가겠습니다.

편집국

2024 제18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 세계적인 작품과 국내 창작뮤지컬이 일으킬 뮤지컬 돌풍
- 제 18회 DIMF, 6월 21일 (금)부터 7월 8일(월) 까지 대구 전역에서 개최
- 역대 최다 작품 25편(총 85회 공연)으로 18일 내내 끊임 없이 즐기는 축제
- 역대 최고의 파격적인 할인혜택 및 가족 관곽을 위한 패키지 티켓까지 출시

대구광역시 주최, (사)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최고의 뮤지컬 축제인 2024년 제18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하 DIMF)이 오는 6월 21일부터 7월 8일 까지 대구 전역에서 개최된다.

DIMF는 대한민국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산업브랜드로 발돋음 하며, 새로운 페스티벌의 지평을 열고 있다.

18번째 올해 축제에서는 프랑스 미국·영국·네덜란드·중국·일본·한국 DIMF역대 최대 7개국의 25개 작품들이 참여해 글로벌 수작의 항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판타지 로맨스 스릴러 어드벤처 등의 폭넓은 장르를 선보일 예정이며, 올해는 특히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이목을 끈다.

DIMF는 최근 문화생활 공연비용이 치솟고 있는 고물가 시대에, 「파격적인 티켓금액」을 내세우며 공연문화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한다. 비슷한 규모 뮤지컬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해 관객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제휴카드 할인 등 작품별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 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즐길 수 있다. 특히, 가족 패키지 상품의 경우, 3인 가족 1인당 2~3만원에 볼 수 있다.

또한, 「만원의 행복」이라는 이벤트 티켓은 올해도 변함 없이 유지되어 판매할 예정이다. 축제 개막 1주일인 6월 15일부터 동성로 CGV 대구한일 극장 앞 부스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 예정이다.

뮤지컬 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완성도 높고 열정적인 무대를 전석 무료로 만나 볼수 있는 「DIMF 대학생뮤지컬페스티벌」도 관객을 기다리고 있고, 특히 올해는 상하이 시각예술대학교가 참여하고 9개의 학교가 참가해 더욱 치열한 선의의 경쟁을 보여줄 전망이다. DIMFmade인 DIMF가 직접 제작한 뮤지컬 등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되니, 뮤지컬 도시 대구에서 수준 높은 문화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다.

편집국

www.dghrd.co.kr

'대경인재개발원'은

경영평가사, 리더 역량개발, 그리고 인재양성 등
교육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 및 프로그램

- AI·인재양성
- 리더십 역량개발
- 창업 및 기업가 정신
- 경영평가사 자격수여
- 성공 및 감성마케팅
- 테마별 맞춤 특강
- 학점인증제 및 교육훈련
- 펀(Fun) 경영 등 경영전략
- 주민자치대학, 좌담회, 토론회 등

[주]대경인재개발원

대구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30, 그루타워 502호
(대흥동 873-1)Tel) 053.721.6757 Fax) 053.766.0379

경북본부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766.1368

레지던스 허와 실

레지던스, 활성화 정책으로 개시

레지던스는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2002년 월드컵 개최로 장기투숙을 희망하는 수요증가에 따라 호텔의 객실을 아파트형으로 개조하면서 시작되었다. 2012년 숙박업을 세분화하면서 취사시설을 포함한 레지던스를 규정하고, 2013년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준주거지역 설립허용, 세제 감면, 그리고 금융지원 확대 등 활성화 정책으로 발표하였다.

시행사들의 주거용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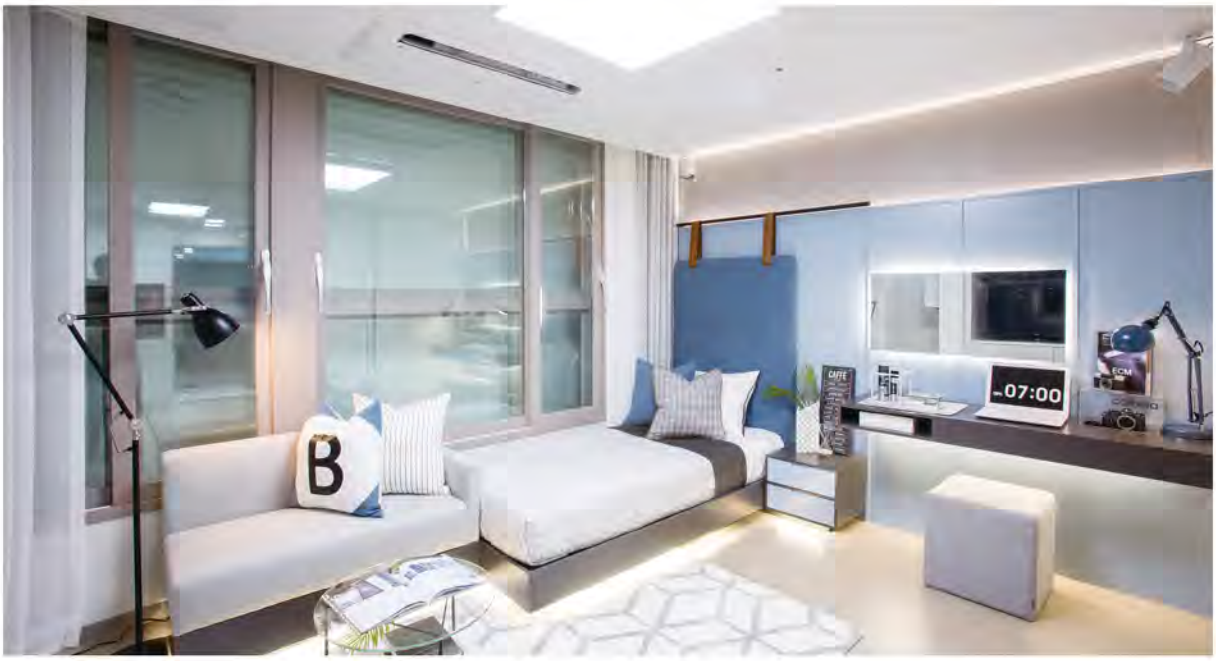
초기의 레지던스는 오피스텔 구조의 건축물을 숙박업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함으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과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행사들은 레지던스의 주거용으로 홍보하면서 수분양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오피스텔 변경 한시적 허용

문제인 정부는 생활숙박시설 규제방안을 발표하고 레지던스를 건축물로 규정 (2021.05)하면서 숙박업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못 하도록 하였다. 국토부 고시로 2021년 10월 14일 이전 분양된 생활 숙박시설의 경우, 23년 10월 14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도록 권고했다. 2023년 4월 14일까지 이미 사용 승인된 생활 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그리고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도록 허용했다.

이행강제금은 헌법상 위헌

문제인 정부는 2021년 4월 14일 생활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택 불법 전용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고시하였다.
이러한 레지던스의 규제들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 자유에 대한 제한과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고시원과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인정

주택산업연구원은 「고시원과 기숙사를 준주택으로 인정하면서 레지던스를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전문위원들은 2023. 8. 31일 국회 세미나에서 「21년 10월 14일 이전 분양 공고된 생활 숙박시설 분양자들에게는 소급적용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레지던스는 신뢰원칙과 주거권

생활 숙박시설은 이미 10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허용하였다는 신뢰의 원칙과 거주이전의 자유인 국민의 주거권을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생활 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한다면 당초부터 일반 숙박시설과 구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다.

레지던스는 첨단 미래 주거형

레지던스는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행복추구에 대한 사회의 변화와 편리성 따라 첨단 주거형태를 갈망하는 미래의 주거형이다. 따라서 생활숙박시설, 즉 레지던스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서 사전적으로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이 가능한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주택법상 오피스텔(Office Motel)은 준주택에 해당하며, 생활 숙박시설도 그 개념을 호텔과 같은 주거환경을 갖춘 집 형태의 리빙텔(Living Hotel) 등으로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가윤 기자

「2024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성황리 폐막

- 5,000여 명의 퍼레이드단과 공연팀이 펼치는 아시아 최대 거리예술축제
- 문화예술도시 대구 위상 확인하는 시간 갖어

시민이 만들고 전 세계인이 즐기는 아시아 최대 거리예술 축제인 「2024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이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0일 금요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월 11일 ~ 12일 양일간 국채보상로 일대에서 개최된 2024 파워풀대구 페스티벌에는 119개 팀 4천여 명의 퍼레이드 팀과 1천여 명의 거리예술 공연팀이 참여한 가운데 쉼 없이 공연이 펼쳐졌다.

축제의 백미인 일반, 아동·청소년, 실버, 해외 4개 부문의 퍼레이드에는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등 해외 9개국 18개 팀과 국내 101개 팀이 마칭밴드, 댄스, 치어리딩 등 다양한 장르의 화려하고 이색적인 광경을 시민들에게 선사했다.

퍼레이드 부문 대상은 70명이 창작무용과 치어리딩, 농악의 융합 퍼포먼스를 선보인 대구팀 「늘품」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일반부 「천무&챔피언(구미)」, 해외부 「리틀 스텝 팩토리(일본)」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시민 퍼레이드에는 대형독수리 연날리기 팀, 200명 규모의 라인댄스협회 등 다채로운 색채의 총 61개 팀이 참가해 시민주도형 대구 대표 시민축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

거리 경연으로 개최된 「파워풀 K-댄스파이터」에는 대만, 일본 등 해외 참가팀를 포함한 수준 높은 실력의 20개 팀이 본선에 진출, K-댄스를 선보여 K-컬쳐와 대구 축제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줬다.

시민체험부스로 구성된 엔조이존에서는 ㈜유엔디 「첨단푸드 로봇카페」, 사진작가협회 「인생사진 찍어주기」 등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었다.

또한 동성로축제, 대구생활문화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가 동성로 일원에서 동시 개최됨에 따라 도심 곳곳은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동성로 인근 상가에는 활기가 넘쳤다.

배정식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축제를 통해 다양한 시민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전국 우수 인재에 지방공기업 취업문 활짝 열어!

- 市 신규공무원 거주요건 폐지에 발맞춰 '25년부터 실시

대구광역시가 지방 최초로 시 산하 공기업인 4개 공사·공단(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직원채용 시 응시자격 요건인 거주지 제한을 2025년부터 전격 폐지한다.

이는 지역인재에 한정적이었던 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취업의 문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대구에 취업을 희망하는 인재라면 누구나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채용 정책을 전격적으로 개선한 조치이다.

현재 대구 지방공기업 응시에 필수요건인 거주요건은 공개경쟁 시험 공고일 전까지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상위 법령에 거주지 제한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지방공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적용해왔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022년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과 더불어 적극적인 구조혁신을 추진한 결과, 2023년 1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공공기관 조직 운영개선에 끊임없이 힘쓰고 있다.

이번 지방공기업 응시 자격인 거주요건 폐지는 그간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대구시가 추진한 공공기관 조직구조 개혁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앞으로 대구시 공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들을 전국에서 적극 유입해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마지막 단추를 채우겠다는 의지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5년부터 대구시 신규공무원 채용과 함께 지역의 공기업에서도 지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그간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거주요건 제한은 전국 우수 인재의 대구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였기에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는 누구나 대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 직원 채용 거주요건의 원칙적인 폐지와 더불어 공공기관별 채용인원의 30%를 지역인재에 할당하는 등 지역의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우대정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편집국

경북 도지사, "대구·경북 통합, 완전한 자치정부 모델 지향"

- 국방·외교 제외한 지방행정. 재정 권한 대폭 확대 필요
- 대구·경북TF와 정부 범부처TF 함께하는 투트랙 전략 추진
- 북부·동부지역 등 지역내 균형발전 방안도 반드시 포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이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운영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지향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통합을 결정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권 확대 인센티브를 정부가 적극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에게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에서 앞장서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장관과 우 위원장도 이미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고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이 도지사는 소개했다.

이 도지사는 20일 오전 도청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대구·경북 TF와 중앙정부 범부처 TF의 투트랙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TF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정부 통합모델을 만들어내면서 북부·동부지역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을 포함해 지역 전체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범부처TF는 분야별 권한이양 등 통합 지방정부에 제공할 인센티브를 확정해 대구·경북을 필두로 500만 인구권의 광역행정 통합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자치단체간 통합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국가운영 방식을 대전환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이 함께 바꾸는, 새로운 경북! 더 나은 내일!

- 2024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30일간 접수, 도민 누구나 응모 가능

경상북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이 느끼는 불편한 규제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4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30일간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공무원 포함) 참여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공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우편, 방문 또는 시·군 규제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복지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일상생활 분야 ▲청년, 경력단절자, 어르신의 취업·일자리 분야 ▲창업, 입지, 고용, 생산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등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무위원회와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 과제가 선정된다. 우수안건 선정자에게는 10월 중에 도지사 표창과 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최종 선정된 과제는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소관 중앙부처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간다.

김경섭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공모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누리집(www.gb.go.kr) - 경북소식 - 도정소식 -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집국

경영저널은 불편한 진실을 알려 정부 당국과 관계자들이 법과 제도 등을 개선하기를 바란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성장거점 지역에 조성된 미래형 도시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

공공기관들의 지역 이전은 지역인재를 영입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 대구·경북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이전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서울에 의존하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은 「지난해 한국가스공사가 체결한 2조 3404억원/1378건 규모의 계약 중 대구 기업과 계약한 금액은 0.49%에 불과한 115억원/53건이다」고 밝혔다. ○○○ 연구원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커녕 서울 수도권 몰아주기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하여 지역의 정치인들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경제와 인력채용 등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주율과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시급

혁신도시에 이주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율은 2020년 66.2%, 2021년 67.4%, 2022년 67.9%로 거의 변화가 없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0년 대구 혁신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1만8천878명, 2021년 1만8천752명, 2022년 1만8천590명이다. 지난 6월 기준은 1만8천207명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2개 김천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실거주 비율과 가족동반 이주율이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혁신도시 15개 기관과 경북 혁신도시 16개 기관

혁신도시는 도시별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별 특색있는 도시로 구분되었으며, 대구시와 경북도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총 31개이다. 대구 혁신도시는 동구 신서동 일원 422만m²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15개 기관이 있다.
경북 혁신도시는 김천시 율곡동 일원 105만m²로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3개 기관이 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에 대한 보상책으로 선정된 개별이전 기관인 경주시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등 3개 기관이 있다.

이가윤 기자

"경영 실적 보고서 작성 역량 강화 실무 교육"

경영 평가사1급 자격시험!

8월 시험공고!

경영 실적 보고서 평가 등급 "S" 받기

- 자격명 : 경영평가사1급
- 등록번호 : 제2023-004860호
- 자격발급기관 : 주식회사 대경인재개발원
-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인 자격증 승급시 1급 필기 면제 혜택까지

과목		대상자	일정
ESG와 지속가능경영	조직 관리와 리더쉽	경영 평가사 활동을 희망하는 자	홈페이지 참조 및 세부 사항은 전화문의
경영평가 방법론	회계 세무의 이해	공공기관 및 기업의 경영 실적 보고서 관련 담당자	대경인재개발원 홈페이지 www.dghrd.co.kr
인적자원 관리론	경영실적 보고서 실무	경영 평가 위수탁 용역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자	교육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위 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문 의 ☎053-766-1368

|주|대경인재개발원

경영평가 실적 관련 용역수행 · 직업능력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 문화예술

INCELLDERM

미백 / 주름개선 2중 기능성 화장품

어린 세포에 빛을 전하는
Byungpool Energy Fluid의 힘

더마톨로지 퍼스트 패키지 EX I 엑티브 크림 EX